
김홍일에 대한 재조명

: 6·25전쟁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 국 근*

I. 머 리 말

II. 김홍일의 생애와 군사 경력

III. 6·25전쟁기 김홍일의 역할 분석

IV. 전쟁영웅 선정과 김홍일의 위치

V. 맺 음 말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 6·25전쟁사 교관
주요논저 : 군(軍) 간부들의 이탈,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mail : long0801@army.mil / long0801@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맥아더, 워커, 김종오 장군과 함께 6·25전쟁 4대 전쟁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김홍일 장군의 6·25전쟁기 군사적·제도적 역할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전쟁영웅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중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김홍일 장군이지만, 6·25전쟁 중 그의 군사적 공적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전 투사령부 편성 및 한강 방어선 구축 등에서의 전략적 기여를 통해 개전초기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하였고 향후 국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뛰어난 리더십 발휘 등을 중심으로 김홍일 장군의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시기 전쟁영웅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김홍일 장군의 상대적 위상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고, 전쟁영웅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 군사사(軍事史) 속 영웅 서사 구조를 재정립하고, 역사적 정당성과 군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김홍일, 6·25전쟁, 전쟁영웅, 광복군, 군 정체성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25전쟁은 한반도 현대사의 군사적·정치적 전환점으로, 대한민국의 군사 체제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¹⁾ 특히 전쟁 기간 주요 지휘관들과 참전용사들의 활약은 ‘전쟁영웅²⁾’이라는 서사 구조를 통해 국가적 기억 속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은 군사 교육, 매체,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되어왔다.³⁾ 그러나 이러한 영웅 담론은 주로 전투 성과와 지휘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 조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거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⁴⁾

대표적으로 김홍일은 광복 전·후 항일무장투쟁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한국광복군(1945년)과 육군사관학교장(1949년), 육군참모학교장(1950)을 역임하고 『국방개론』을 저술하는 등 국군 창설과 제도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⁵⁾ 특히 그는 6·25전쟁 발발 직후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구성하여, 한강 이남 방어선 구축과 병력 배치, 민간인 대피 병참 체계 마련 등 후방 지원과 병참 체계 조정을 담당하였다.⁶⁾

김홍일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 중국 국민혁명군 참여, 광복군 시절의 군사 활동, 해방 이후 국군 창설에의 기여 등을 중심으로 전기적·사실 기술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김홍일의 독립군

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나남출판, 1996, 제15장

2) 본 연구에서 ‘전쟁영웅’은 단순히 전투적 공훈을 세운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기 국가와 사회의 상징적 기억 속에서 군사적·제도적·정신적 기여가 집약된 인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것은 1983년 국방부의 6·25전쟁 4대 영웅 선정 기준을 고려한 정의에 근거한다.

3) ‘다양한 수단’이라 함은 국방홍보원의 ‘그날 군대 이야기’를 통한 장병 정신교육, 국가보훈부 주관 ‘이달의 전쟁영웅’선정 등이 있으며, 6·25전쟁 당시 역사적 영웅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것은 세종시 ‘김종오 장군 탄신제’, 사단법인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4) 김광규, “6·25전쟁에서 ‘전쟁영웅’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회과교육연구」, 제26권 2호, 2019, p.22

5) 남정욱, “김홍일의 독립운동과 국군에서의 활약”, 「월간순국」 6·25전쟁 정전 70주년 특집, 2023, p.34

6) 박동찬,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 군사편찬연구소, 2024, pp.59~63

경력, 국민혁명군·광복군 시절의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 군의 제도 정비에 기여한 경력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⁷⁾ 또한 「오성 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자료집(2024)은 그의 활동과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특히 중국 내 군사 활동과 해방 후 군 지도자로서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⁸⁾ 한편 최근 연구는 전쟁 초반 국군의 지연전 수행과 방어체제 구축을 전략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김영환·이성춘(2023)은 대전지구 전투를 단순한 패전이 아닌 '연속 지연방어전'으로 규정하면서, 국군의 초기 대응이 미 지상군 증원 및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 시간을 제공했다고 분석한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김홍일이 편성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적 함의를 재평가할 여지를 제시한다.

1983년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김홍일을 포함한 4인을 6·25전쟁 4대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으며.¹⁰⁾ 이는 단순한 전투 성과 외에도 제도적 기여와 정신적 상징성 등을 고려한 포괄적 영웅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영웅화 과정에서는 실질 전투지휘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연구·서술에서의 김홍일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작전 지휘에서 일정 부분 배제되었다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 등으로 인해 전쟁 기간 역할이 과소 평가되어왔다.¹²⁾ 결국 2024년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가 발족 되었고, 2025년 10월에는 '육군군사연구소'에서 앞서 기술한 김홍일의 저서 『국방개론』을 독자들의 가독성 증진 목적으로 한글화한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홍일의 6·25전쟁기 역할을 군사적, 제도적, 상징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동시기 주요 전쟁영웅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영웅 개념의 다층성과 시대별 선정 기준의 상대성을 고찰하고, 향후 군사사(軍事史) 서술과 리더십 교육에 있어 전쟁영웅 개념의 다층성을 규명하여 군사사 서술의 균형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7) “김홍일(金弘壹)”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1096>), 검색일 : 2025. 10. 17.)

8) “오성 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http://www.kimhongil.org/kim_history01.asp, 검색일 : 2025. 10. 14.)

9) 김영환, 이성춘, 「북한의 6·25전쟁 계획과 대전지구 전투에 관한 재평가」,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

10) 1983년 국방부 선정 6·25전쟁 4대 전쟁영웅 : 김홍일, 김종오, 더글라스 맥아더, 윌트 워커

11)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983

12) 남정욱, 앞의 논문, pp.3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본 연구는 김홍일의 6·25전쟁기 역할을 다각도로 고찰하기 위해, 전쟁 발발 전후의 군사적 위치, 제도적 기여, 리더십 성격 등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로 1918년 중국 망명 시기부터 1983년 국방부 전쟁영웅 선정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945년 한국광복군 참모장 시절부터 1950년 9월 1일 지휘관 교체(1군단장 경질) 및 육군종합학교장 전임까지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김홍일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한강 방어를 수행하고 초대 1군단장으로서 성공적인 지연전을 실시한 국면으로, 전쟁 초기의 체계 정비와 대응 전략 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¹³⁾

공간적 범위는 김홍일이 관할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구역(한강이남 수도권 방어진대)과 1군단의 작전구역(낙동강방어선 동부지역)까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전투 분석을 넘어 군사 체계 정립과 방어선 구축, 지휘통제 구조에 기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김홍일을 대상으로 한 문헌사료 분석과 비교사적 접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1차 사료로는 「국방위원회 회의록」과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국방사 연표」, 육군본부의 「육군사」 등을 활용하여 당시 정책 결정과 조직 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2차 문헌으로는 군사학·정치사학·리더십 연구 논문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김홍일과 동시대 전쟁영웅 간 비교를 통해 상징성과 역할의 상대적 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쟁영웅’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맥락과 정치·사회적 담론에 따라 변화하는 상징적 구조물임을 전제로, 전쟁영웅 담론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¹⁴⁾ 이를 통해 단편적인 군사적 전과 중심의 영웅 서사를 넘어서 제도 창설자, 정신적 상징, 리더십 모델로서의 영웅 개념을 학문적으로 확장하였다.

13)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軍史)」 99호, 2016, p.230-252

14) 최영진, “한국적 전쟁영웅의 탄생과 시대적 변화”, 「국제정치연구」, 제19집 2호, 2016, pp.340~361

Ⅱ. 김홍일의 생애와 군사 경력

1. 중국 망명과 항일 군사 활동

김홍일은 일제 치하의 민족적 고통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1918년 9월, 중국으로의 망명을 결정한다. 첫 도착지는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알려진 상해(上海)였고,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귀주(貴州)에 있는 육군강무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육군강무학교에서 1년간의 군사교육과 훈련을 마친 김홍일은 1919년 12월 학교를 졸업하고 귀주기포공병실시학교에서 6개월간의 포병과 교육을 받고 중국군 장교로 첫 군무(軍務)를 시작하게 된다.¹⁵⁾ 그러나 얼마 후 그곳을 떠나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곧 만주 지역에 있는 대한독립군과 합류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했지만, 자유시 참변¹⁶⁾이 일어나 대한독립군이 무장해제 되었고, 더욱이 자유시 참변으로 대한독립군이 무장 해제되면서 활동 기반이 붕괴되었으며, ‘대한의용군’을 결성했지만 그마저도 러시아와 일본군의 공격으로 해산되기에 이른다.

이후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군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김홍일은 1926년, 중국 국공내전 시기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의 북벌전쟁 소식을 접하고, 대한의용군총사령관을 역임했던 이용(李龍)과 함께 국민혁명군에 합류하였다. 그는 소교(小校, 소령)계급으로 임관되어 국민혁명군 내에서 군수 및 전술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 항일전쟁과 국민혁명군 개혁에 참여하였다.¹⁷⁾ 이러한 경험은 훗날 김홍일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과 군수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군사행정과 조직 운영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갖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15) 남정옥, 앞의 논문, pp.32

16) 러시아 스보보드니(러시아어, 자유로운)에서 붉은 군대의 통수권 접수를 거부한 한인 망명 독립 군들이 포위 진압된 사진

17) 쉰커즈, 유효인, “김홍일의 독립운동과 항전 활동”,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pp.29-30

〈표 1〉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과 항일전쟁

구 분	내 용	비 고
1926년	· 국민혁명군 북벌 동로군 총지휘부 소령 참모 임관	중령 진급
1927년	· 浙江省(저장성) 경비독립단 결성, 2대대장 임명 · 룡탄(龍潭, 용담) 전투 참가 ¹⁸⁾ · 북벌군 제1군 제1사단 병기 부대장 임명	대령 진급
1928년	· 우쑹(吳淞) 요새사령부 부관처장 임명 (9월) * 상하이 병기공장 무기처장 겸직	
1931년	· 독립운동가 폭탄 제공 (→김구)	이봉창, 윤봉길
1932년	· 송후항전(淞滬抗戰) 참가	
1933년	· 난창사령부 재편, 제2청 제1처 제1과 대령 참모 임명	
1937년 ~ 1940년	· 송후(淞滬, 송호) 전투 참가 (102사단 참모) · 난창(南昌, 남창) 전투 참가 (제9전구 전방 총사령부 참모) * 「4월 공세의 적 정보」집대성	중일전쟁 소장 진급(1939년)
1941년	· 19사단장으로서 상가오(上高, 상고) 전투 참가, 대승 · 충칭 육군대학 특별반 제6기 생도 입학	1943년 12월 졸업
1944년	· 청년군 훈련 총감부 참모처장 임명	
1945년	· 한국광복군 참모장 임명(5월) ¹⁹⁾ · 광복 후 중국군 복귀, 동북 보안사령장관부 한인 교무사무처장 임명	중장 진급(1947년)
1948년	· 귀국(8월 28일)	

출처 : 유효인 · 쉰커즈, “김홍일의 중국군 활동과 독립운동 참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25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48년 귀국 전까지 일제에 대항하여 중국에서의 군인 활동은 물론, 독립투사들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927년 북벌군 병기부대장으로 임명된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활약하면서 실무를 쌓은 그가 이제 막 독립하여 창군기를 걸어갔던 1940년대 중·후반의 대한민국 군의 발전을 위해 작성한 『국방개론』은 대표적인 군사 사상서로 주목받고 있다.²⁰⁾ 즉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속 한반도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몸소 겪으며, 때로는 군인으로서, 때로는 독립운동가로서 제도 설계자 및 조직 운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군으로서 대부분의 활동은 ‘참모’의 역할로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한 기록은 적지만, 1941년

18) 김종문, “김홍일의 일생과 독립운동”, 『한국군대사연구』, 68호, 2014, pp.84

19) 한시준, “중국군인 신분으로 항일운동을 한 김홍일”, 『사학지』, 57호, 2018, pp.102

20) 김지훈,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군 경험과 국방개론 저술』, 『군사(軍史)』, 제112호, 2019, pp.4-16

상가오(上高, 상고) 전투에서 19사단장이라는 지휘관의 직책으로 일본군 15,000명을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둔 전력²¹⁾이 있는 장군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홍일의 첫 중국 망명의 이유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하이 병기공장 무기처장을 겸직하며 독립운동가에게 폭탄을 제공하는 모습은 독립운동에 항일운동 지원자의 면모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²²⁾ 이는 광복 이후 국군 창설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독립군 출신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2. 국군 창설과 제도적 기여

그토록 바랐던 광복이 찾아왔지만, 광복 이후의 한반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히,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은 소련의 한반도 진입을 야기했고, 이로 인한 미군의 남한 진주(군정청 설치)²³⁾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주도한 창군 노력 즉,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발표된 ‘한국광복군선언문’을 시작으로 일본 점령 지역 내의 한인 청년들의 징모(徵募) 활동,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²⁴⁾ 등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는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중국이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철회했고, 미군정의 무력 단체 활동 금지 반포, 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 우려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였다.²⁵⁾

이 무렵 김홍일은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요청과 중국 장제스 총통의 동의로 광복군 참모장에 취임하였으나(‘45년 5월), 광복 이후 중국군으로 복귀한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에야 귀국한다. 이때부터 그는 중국에서의 풍부한 활동과 독립군·광복군 출신으로서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군사적 공백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건군(建軍) 작업에 참여하였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가 설치되고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이범석 장군이 취임하였는데, 이때 설립된 제2국(정치국) 국장으로 김홍일 장군이 취임하였다. 후술하겠지만, 1949년 1월 15일 제7대 육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하면서 저술한 『국방개론』에서 그의 국

21) 썬커즈, 유호인, “김홍일의 독립운동과 항전 활동”,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pp.36-37

22) 김형민, 「별 셋 더하기 별 둘 5성 장군 김홍일」, 시사in 522호, 2017, pp.63

23) 국방부, 「건군사(建軍史)」,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74-91

2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한국광복군 I, 해제”, 군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 검색일 : 2025. 10. 15.).

25) 김영환, “창군기 기동군 창설 담론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56집, 2023, pp.12-15

방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제2국 국장을 지내며, 국군 장병들의 교육과 사상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²⁶⁾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이범석 장군은 유일하게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지휘 경험이 있는 김홍일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국군의 편성,²⁷⁾ 훈련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했는데, 이는 건군 초기 국군의 편제와 조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²⁸⁾

이렇듯 김홍일은 후술할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서 한강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의 진군을 6일 동안 막아낸 전술적인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은 물론, 건군 초기 국군의 이념과 조직 구성 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3. 6·25전쟁 발발 이전의 활동

김홍일은 귀국 후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장군(將軍)으로 임관(군번 12329)하게 된다.²⁹⁾ 이듬해인 1949년 1월 15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제7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관 직후 약 한 달간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제한적이지만, 육군사관학교 제7대 교장으로 행한 업적을 보면, 그 한 달간의 행적을 일정 부분 추정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학교의 교육체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군 체계는 창설 초기의 조직적 불안정성과 지휘체계 미비로 인해 군사교육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전 경험이 있는 실력자의 고견이 필요했었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김홍일이었던 것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7대 교장으로서는 김홍일의 재임기간은 약 18개월로, 이전 1~6대 교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6개월 미만³⁰⁾)에 비해 길었다. 김홍일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이 시기의 조치는 이후 국군 장교단의 정신적 기틀과 제도적 연속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6) 정형아, “군사전문가로서의 김홍일과 중국”,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 장군 기념 사업회 제1회 국제학술회의, 2024, pp.59

27) 국방부, 『건군사(建軍史)』,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54-58

28) 김지훈,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군 경험과 국방개론 저술』, 군사(軍史), 제112호, 2019, pp.28

29) 정호영, 『6·25 개전 초 한강방어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다. 독립군·광복군 출신으로 국군 최초 별단 김홍일 장군』,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제 569호, 2021, pp.17

30) 제1대 : 참령 이형근('46. 5. 1. ~ '9. 6.)

제2대 : 참령 원용덕('46. 9. 6. ~ '47. 1. 23.)

제3대 : 소령 정일권('47. 1. 23. ~ '5. 1.)

제4대 : 중령 송호성('47. 5. 1. ~ '10. 11.)

제5대 : 소령 김백일('47. 10. 11. ~ '48. 7. 29.)

제6대 : 중령 최덕신('48. 7. 29. ~ '49. 1. 15.)

〈표 2〉 육군사관학교장 시절 업적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훈 제시 : 충인용(忠仁勇) → 충용(忠勇) → 지인용(智仁勇) · 육군사관학교 정규과정 개설 추진³¹⁾ · 교양강의 활성화로 생도들의 국가관, 군인관 확립³²⁾ · 『국방개론』 저술

출처 : 조승욱, 「육군사관학교 : 그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글씨앗, 2024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국방개론』의 저술이다.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저술된 것이지만, 국방 사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³³⁾

“역사는 쉬지 않고 연속해서 전진한다. 민족국가 간에는 그 천연자원매장의 후박과 생산기술발달의 선후로 인하여 국방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 이리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국방역량은 장기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안전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된다. 육해공군을 완비하지 못한 국가민족은 옹호한 국가민족에게, 기술이 낙후된 국가민족은 기술이 진보된 국가민족에게 항상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어떤 군사가는 ‘국방건설이란 생산 없는 투자일망정 이 투자를 아낀다면 국가사회는 물론, 개인의 생활 활동까지 정치되고 단절된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을 시험 삼아 자연계를 돌아보면 알 것이다. …(중략) 인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의 영토주권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이외에 국책의 수행과 국가기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야 말로 국방이다.”

다시 말해 국방의 개념을 처음 정립하여 대한민국 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김홍일은 1949년 2월 4일부로 육군 최초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1950년 6월 10일까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다, 6월 10일부터는 현 육군대학의 전신³⁴⁾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참모학교장으로 임무수행 했고, 6월 25일, 6·25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31) 이외 교수부 교과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김태산, 「육군사관학교 변천사 연구 : 1946~1969년 교수부 교과과정 및 편제 변천을 중심으로」, 학예지 통원 제23집, 2016년을 참고한다.

32) 조승욱, 「육군사관학교 : 그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글씨앗, 2024, pp.479-480

33) 김홍일, 「國防概論」, 고려서적, 1949, pp.11-12

34) “대한민국 육군대학”,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C%A1%EA%B5%BOEB%8C%80%ED%95%99, 검색일 : 2025. 7. 12.).

Ⅲ. 6·25전쟁기 김홍일의 역할 분석

1. 시흥지구전투사령관 임명과 한강 방어선 방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이 개시되었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채병덕 총참모장의 비상발령을 받고 육군본부 상황실로 가장 먼저 도착한 이치업 대령은 “총참모장과 작전국장 등이 복귀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다.”고 술회하였다.³⁵⁾ 또한 6월 29일, 한강 이남에서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 장군도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는 혼란 상황에 있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으며...”라고 미 합참에 보고³⁶⁾했을 만큼 단편적이지만 지휘체계가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참모학교장 임무를 수행 중이던 김홍일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는 문산 지구 제1사단 백선엽 대령의 작전 지도였다. 당시 1사단은 사단의 3개 연대와 배속된 2개 연대, 1개 포병대대가 온전하게 임무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선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1사단 병력을 한강선 이남으로 퇴각시켜 지연전을 펼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백선엽 1사단장은 이를 듣지 않았고 결국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고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였다.³⁷⁾ 이 일을 두고 김홍일은 그의 자서전에서 크게 안타까웠다고 회고하였다. 이후 전선의 급속한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김홍일은 채병덕 총참모장의 지시로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의 직책을 부여받게 된다. 그의 임무는 한강을 연하는 선에서 미군 증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의 남진을 3일 동안 묶어두는 것이었다.³⁸⁾ 그 당시의 전투상황과 기록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3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 어떠한 악조건하에서 약 6일간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6일이 향후 작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홍일이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의 임무를 시작한 28일 12시에는 국군 수뇌부 역시 자연 장애물인 한강을 이용한 방어계획을 수립할 경황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전무(全無)하였고, 육군본부의 철수에 따라 한강교가 폭파되어 각 사단에 배치되어야 할 보

35) 국방부, 「6·25전쟁사 제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62-63

36)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軍史) 제99호, 2016, pp.228-229

37)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軍史)」 99호, 2016, p.230-232

38) 김홍일, 「나의 六·二五繚戰回顧 : 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 제138호, 1964, pp.229

급물자들과 차량 1,318대가 고스란히 한강 이북에 갇혀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⁹⁾ 또한 김홍일의 노력으로 모인 피난 병력들이 혼성사단으로 구성되었고, 이름은 사단이지만 연대 규모였으며 누적된 피로로 인해 전투력이 악화되어 있었다. 심지어 건제가 유지된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가 서로를 몰랐고, 부하가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과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사단은 제한된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선을 유지하였다. 김홍일은 당시 회고는 다음과 같다.

“나는 결사적 결의로써 후방보급이 되지 않아 병사들과 같이 주먹밥에 소금물을 마시면서 삼일삼야(三一三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부하들을 고무 격려하면서 장병들의 애국심에 힘입어 참으로 기적적이고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였던 것이다. …… (중략) 28, 29, 30 등 3일간 적은 주간에 맹렬한 포병 엄호사격 아래 한강 남안 흑석동 언덕 아래 수도수원지, 사육신묘지, 노량진역 등처(等處)에 일부 병력을 도강시켜 교두보를 구상하려 하였으나 저녁만 되면 우리 병사들의 용감무쌍하고 참렬(慘烈)을 극한 백병전으로 이를 섬멸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⁴¹⁾

김홍일이 이끌었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한강 방어선 3일’에 대한 평가는 6·25전쟁 직후 미비했던 대비 태세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국군으로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경험적 자신감을 부여했다는 점, 미 지상군 투입과 유엔군 편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 군사편찬연구소 외 다수의 논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김홍일의 관점에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자체의 가치와 이후 제1군단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것인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즉,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국군의 지휘체계를 다시 수습하여 전면 붕괴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 채 ‘지연작전’ 방어체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과 전시 긴급 조직 체계 수립과 군 지휘체계 복구와 유지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단순 전투 현장의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전시 상황 속 조직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군 고위 지도자의 전략적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김홍일의 한강 방어선전투 6일은, 개전 후 국토의 95%를 잃은 채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8월까지 약

39) 엄섭일, 「한국전쟁(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187~188

40) 국방부, 「6·25전쟁사 3권」,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166

41) 김홍일, 「나의 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 제138호, 1964, pp.230

35일의 시간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고문관이었던 로버트 하제레트(Robert Hazlett) 중령이 요청했던 ‘3일’⁴²⁾이라는 시간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향후 있을 전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된다.

2. 1군단 창설과 중서부지역 지연전(진천·청주·음성)

7월 3일, 한강 방어선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폭파되었던 한강철교로 북한군 전차가 속속 도하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한강 방어선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시 육군 총참모장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정일권 소장은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피해 정도와 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1군단을 창설, 초대 1군단장에 김홍일을 임명하고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사단들을 규합하여 수도사단, 1사단, 2사단으로 개편한다.⁴³⁾ 그 무렵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한강방어로 미 지상군이 투입되자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축선은 미군이, 중부 및 동부축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미 극동군 전방지휘소 처치(John H. Church) 준장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작전 분담 및 단계적 지연방어 수행으로 이어졌다.⁴⁴⁾

〈표 3〉 시흥지구전투사령부 편성



출처 : 6·25전쟁 초기 지연전의 지휘와 성과, p.91, 재구성

42) 김영환 “6·25전쟁 초기 지연전의 지휘와 성과”,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pp.90

43) 국방부, 『6·25전쟁사 3권』,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254-257

44) 김영환, 이성춘, 『북한의 6·25전쟁 계획과 대전지구 전투에 관한 재평가』,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 pp.79-81

〈표 4〉 제1군단 사령부 편성(7.7. 부)



출처 : 6·25전쟁사 3권, p.435, 재구성

개편된 제1군단의 주요 작전 목표는 지연전 수행을 통한 전투력 보존과 낙동강 방어선 형성까지의 시간 확보였다. 김홍일은 축차적 철수와 단계별 방어를 병행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기 전인 8월 1일까지 제1군단은 중부전선의 유지와 후방 방어시간 확보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전투로 수도사단이 수행한 ‘진천-청주전투(7. 6. ~ 13.)’, 독립 17연대의 ‘화령장 전투(7. 17. ~ 21.)’, 1사단과 6사단 7연대의 ‘음성전투(7. 4. ~ 7.)’, 1사단의 ‘괴산-미원전투(7. 15. ~ 23.)’ 등이 있다. 진천-청주전투에서 수도사단은 북한군 제2사단의 남진을 7일간 지연시켜 낙동강 방어 준비를 위한 결정적 시간을 확보했으며, 화령장 전투에서는 독립 17연대가 북한군 제15사단 예하 2개 연대를 섬멸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이 일련의 전투들은 모두 제1군단의 작전통제 하에 수행된 단계적 지연전의 일환이었다.⁴⁵⁾

상기된 지연전은 각 사단의 뛰어난 전술에 의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1군단장이었던 김홍일의 여러 지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천 전투에서는 진천 북쪽에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집결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수도사단의 상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당시 1군단의 예비였던 2사단에게 수도사단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추가적인 전력을 보강하여 진천 일대를 방어하도록 하였다.⁴⁶⁾ 또한 청주전투에서는 북한군의 총공세에 맞서 전황을 확인하던 중 병력들의 적절한 투입과 재배치, 철수 등 최소한의 피해로 남하하는 적을 저지할 수 있었다.⁴⁷⁾ 이러한 지휘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은 화령장 전투에서였다. 김홍일은 “적이 갈령 북쪽인 화북면 일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으니, 이를

45) 국방부,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

46) 위의 책, pp.35

47) 위의 책, pp.118-120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를 포착, 섬멸하라.”는 지시를 정보참모 보좌관 겸 정보대장인 방원철 소령에게 하달하였다. 방원철 소령은 “적의 정규부대가 이미 갈령까지 진출했고, 전투부대의 투입이 요망됩니다.”라는 정보수집 결과를 김홍일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육군본부는 인접 2군단의 정보대 활동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1군단의 독립 17연대를 2군단으로 배속, 화령장 일대에서 북한군 2개 연대를 섬멸하는 전과를 올리게 된다.⁴⁸⁾

결과적으로 제1군단의 지연전은 단순한 후퇴작전이 아니라, 전투력 보존과 전선 재정비를 병행한 전략적 시간전(時間戰)이었다. 김홍일의 지휘하에 각 부대는 지역적 전투를 수행하면서도 군단의 작전목표에 따라 통합적으로 움직였다. 이 점에서 제1군단은 한국전쟁 초기 국군의 혼란 속에서 최초로 조직적 지연방어 체계의 작동 모델을 제시한 부대로 평가된다.

〈표 5〉 1군단의 지연전 대표전투

구 분	내 용
청주전투	수도사단 vs 北 2사단
진천전투	수도사단, 6사단 19연대 vs 北 2사단
화령장전투	독립 17연대 vs 北 15사 48·49연대
음성전투	1사단, 6사단 7연대 vs 北 15사단, 1사단
괴산-미원전투	1사단 vs 北 15사단 50연대

출처 : 국방부, “6·25전쟁사 부도”, 합동군사대학교, 재구성

이와 같이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를 운용해본 김홍일의 군사적 식견과 리더십은 각 사단의 지휘관들에게도 전달되어 각 사단이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전과를 올리게 하였다. 아울러 이 전과는 향후 대전지구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7월 19~20일 사이에 벌어진 미 24사단의 대전지구 전투는 인력 40%, 장비 60%를 손실하는 전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음성-청주를 잇는 대전 북동부 지역을 방어하여 옥천방향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미 24사단이 건제를 유지하여 철수할 수 있었다.⁴⁹⁾ 또한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기까지 약 20일의 시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미군 2개 사단의 추가 전개와 국군의 재정비가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48) 위의 책, pp.200-230

49) 김영환, 이성춘, 「북한의 6·25전쟁 계획과 대전지구 전투에 관한 재평가」,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 pp.75-87

3.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기계·안강전투

김홍일이 이끄는 제1군단은 7월 12일 창설된 2군단 및 미군의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과정을 겪었다. 7월까지의 작전이 전투력 보존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연전 단계였다면, 8월 이후의 작전은 더 이상 후퇴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 방어전 단계로 전환되었다. 이 시점에서 김홍일의 주요 전장은 영주~안동 축선이었다.⁵⁰⁾ 8월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공세 속에 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8사단은 기계-안강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표 6〉 낙동강 방어선의 동부전선 전황

날 짜	내 용
8. 7.	· 北 12사단 ‘현동’일대 출현
8. 9.	· ‘기계’ 실함
8. 11.	· ‘포항’ 실함
8. 14.	· 수도사단, 현동-죽장-기계 축선 투입
8. 16.	· 유리한 고지 점령 전투
8. 18.	· ‘기계’, ‘포항’ 탈환
8. 24.	· 韓 1군단 전투지대 재조정
8. 27.	· ‘기계’ 실함 · 北 야간 역습으로 기계 재점령
8. 29.	· ‘기계’ 탈환
9. 1.	· 韓 지휘관 경질 - 1군단장 : 소장 김홍일 → 김백일 준장 - 수도사단장 : 대령 백인엽 → 대령 송요찬 - 3사단장 : 준장 김석원 → 대령 이종찬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재구성

〈표 6〉에서 표현한 대로, 동부전선에서 기계-안강 일대는 영천, 부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축선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령은 낙동강 방어선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8월 9일과 11일에 기계·포항을 빼앗기면서, 한때 낙동강 방어선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이 위기를 극복한 곳에도 김홍일이 있었다. 이 때 김

50) 국방부지시에 따라 7월 24일, 육군의 지휘체계를 재조정하여,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8사단을, 제2군단이 1사단과 6사단을 지휘토록 하였다.

합동군사대학교 전쟁사연구실, 「6·25전쟁사 上」, 합동군사대학교, 2013, pp.4-68

홍일은 불리해지는 전황을 보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다. 특히나 ‘기계’지역으로 출현한 북한군은 ‘죽장’일대로 남하하였기에 1군단의 작전지역이 아니었다. 따라서 김홍일은 작전 관할권을 초월한 작전을 육군본부와 고심하던 중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4호에 따라 육본 직할이었던 3사단을 1군단에 배속하고 1군단의 작전지역을 기계·안강·포항 일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세적인 작전으로는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북한군을 역포위하여 섬멸하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이 작전으로 기계·포항 일대를 다시 탈환하였고 격렬한 전투 끝에 북한군 1,250구의 시체를 확인했으며, 많은 무기를 노획할 수 있었다.⁵¹⁾ 이러한 전술은 전투의 승패를 넘어, 낙동강 방어선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5권)』는 이 시기의 전투를 “지속적인 방어전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며, 특히 김홍일의 “지휘통제 유지력과 작전지속능력 확보에 대한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⁵²⁾

4. 작전지휘 배제와 그 효과

그렇게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김홍일은 9월 1일부로 1군단장에서 해임되어 육군종합학교장으로 전임되었다.⁵³⁾ <표 6>에서 9월 1일 이후의 전투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북한군이 9월 공세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특히나 8월 29일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되어 ‘기계’를 탈환하였으나 30일에 재점령당하는 등 전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에,⁵⁴⁾ 전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1군단장 김홍일의 경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이동원 등 여러 연구자는 고령 및 전투피로도 고려, 군 내부 파벌의식 작용, 미군 지휘관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무계가 실리는 쪽은 미군 지휘관과의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프란체스카 회고와 정일권 회고록에서 유추할 수 있다.

51) 국방부,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p.43-59

52) 국방부, 「6·25전쟁사 제5권」,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577-581

53) 故 백선엽 장군은 월간조선에서 “김 장군은 훗날 부산 동래의 육군종합학교 초대교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서 그는 전쟁기간 중 각급부대에서 훌륭하게 전투를 치러낸 ‘갑종장교’들을 대거 배출했다.” 고 회고하였다.

출처 : 월간조선 2010년 6월호 '6·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 백선엽이 만난 6·25전쟁 영웅들 <下·끝>, 글 오동룡

54) 합동군사대학교 전쟁사연구실, 「6·25전쟁사(中)」, 합동군사대학교, 2013, pp.5-78~79

55) “대한민국 ‘5성 장군’ 김홍일… 별 둘은 광복에, 별 셋은 구국에 바치다.”, 「한국일보」(2025년 7월 3일)

“김석원 장군뿐 아니라 김홍일 장군도 미 군단장 콜터 장군이나 한국군 제1연대와 함께 있는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로 어제(8월 28일) 부대를 조금 전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⁵⁶⁾

“워커 중장은 이어 9월 7일 영천방어가 가망 없어졌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미 8군의 전면철수를 고려하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국군 2개 사단과 민간인 10만 명의 철수계획은 자신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⁵⁷⁾

즉, 미군이 낙동강 방어선의 불리한 전황으로 봤을 때, 미 8군의 전면철수를 고민하고 있고 한국군 2개 사단과 민간인 10만 명의 철수계획⁵⁸⁾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의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1군단의 노장(老將)이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달 만에 지휘관에서 물러난 김홍일은 육군종합학교장으로 전임되었고, 이듬해 1951년 3월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의구심을 품거나, '만약'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없지만, 당시 군(軍)의 원로이자 사단급 이상 대부대의 경험이 많은 김홍일을 경질한 것은 역사적 해석이 분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은 육군종합학교장을 역임하며, 또 다시 활약하게 된다. 김홍일이 육군종합학교장에 부임한 시기는 1950년 9월 6일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9일 전이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북한군의 9월 총공세로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시기였다. 당초 8월 15일에 부산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던 김일성은 8월 총공세가 다부동 전투의 패배로 실패하자, 여러 군관들과 병사들에게까지 독전하여 낙동강 전선 전 지역에 걸쳐 9월 공세를 하던 시기였기에 낙동강 방어선은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었다. 특히, 그 병력들 중에서도 병력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정예 장교들이 필요했다. 육군종합학교는 그러한 취지에서 약 7,288명의 장교를 배출한 기관이다.⁵⁹⁾ 물론 전

56)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기파랑, 2010, pp.119-120

57)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pp.86

58) “New Korea Plan”으로 영천이 피탈되었을 때, 구상된 계획으로 미국령 사모아계도로 망명한다는 계획임. 「1129일간의 전쟁 6·25」, 육군군사연구소, 2014, pp.116

59) 육군종합학교를 다룬 연구자료 마다 배출된 장교의 숫자는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박경석, 「陸軍綜合學校」, 서문당, 1990을 참고하였으며, 추가적인 기록들은 아래 문건을 참고하였다.

「戰時사관학교' 육군종합학교 출신 장교 7288명 : 6~9주 훈련받고 死線으로 3550여 명 전사·부상」, 주간조선. 통권2111호, 2010, pp.26-28

「(實錄) 六.二五 韓國戰爭과 陸軍綜合學校」,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1995

「陸軍綜合學校 : 그 榮光된 자취를 찾아」, 자유사, 1999

기간에 걸친 인원이지만,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김홍일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지도, 격려했다. 특히, ① 종합간부후보생 양성, ② 유격 전문과정 신설(8주), ③ 동래여중교에 제2분교 설치, ④ 최초의 여자의용군(박소희 외 12명) 배속교육⁶⁰⁾ 등을 추진하여 군사교육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김홍일의 육군종합학교에서의 행적은 짧지만 강한 인상을 준다.

당시에는 단기간에 전선으로 투입될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주였기 때문에, 약 9주 동안의 교육을 진행하고 바로 전선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들이 배출되는 곳에서 많은 사상자도 있었지만, 6·25전쟁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전투에 대부분 투입되었다. 김홍일은 6·25전쟁 발발 25년 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⁶¹⁾

“한국전쟁에서 기적이 있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육군종합학교 출신 장교들을 들겠다.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개 전투 병사를 훈련시키는 데도 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들은 평균 9주 내외의 교육기간이었지만 출전하여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그가 전투 현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교육을 통한 전력화, 리더십 확산, 조직 재생산의 측면에서 군사적 기여를 지속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김홍일의 지휘 전환은 일시적 해임으로 보기보다, 전선 안정화와 교육체계 확립이라는 기능적 역할 분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1951년 3월 17일, 육군종합학교장직을 내려놓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여 군복을 벗었다. 이후의 행적은 대만 대사로 복무한 것이나, 논문의 목적상 이후의 행적 등을 정치활동의 관계로 생략한다.

IV. 전쟁영웅 선정과 김홍일의 위치

1. 1983년 국방부 전쟁영웅 선정의 배경

1980년 8월 8일, 김홍일은 83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같은 달 12일 거행된 그의 영결

60) 육군보병학교, “역대지휘관”, 군 인트라넷 검색

61) 김운기, 「총알받이 장교의 限 : 한국전쟁과 陸軍綜合學校」, 한국논단, 1994

식에는 정일권(丁一權), 이응준(李應俊), 백선엽(白善燁) 등 퇴역 장군들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李熾性), 합참의장 유병현(柳炳賢) 등 군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⁶²⁾ 당시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군사적 전문성과 항일정신이 조명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80평생(平生)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주발전을 위해 몸 바치신 장군의 불굴의 투지와 끈은 성품은 국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중략) 조국광복을 위해서는 무력항일 투쟁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중국군의 군단참모장으로 젊은 시절을 무인정신으로 단련했습니다. …(중략) 해방 후에는 국군의 창설에 많은 공헌을 남겼습니다. 특히 군대의 편제와 훈련에 대해서는 유일한 근대식 군대지식을 갖춘 장군으로서 창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⁶³⁾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일대기는 1985년 KBS 1TV에서 3부작 드라마로 방영되어, 국군의 날인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방영되었다.⁶⁴⁾ 그 배경에는 1983년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6·25전쟁 4대 영웅’ 발표에 있었다.⁶⁵⁾ 6·25전쟁 4대 영웅 선정은 박경석 예비역 준장의 주도하에 이한림 예비역 중장(1군사령관 역임), 이병형 예비역 중장(2군사령관 역임), 박정인 예비역 준장(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장 역임)과 함께 심사하였고, 큰 이견 없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출되었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에 동의하였다.⁶⁶⁾ 박경석 예비역 준장은 자신의 에세이 ‘정의와 불의’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1983년에는 한국전쟁 참전 당사자가 거의 생존해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계되는 중요 장성들 모두 건재했기에 (4대 영웅 선정에)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났다.”

즉, 당시 ‘김홍일 장군 영결식’ 신문기사의 내용과 6·25전쟁영웅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점, 국군의 창설과 조직 정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서의 한강

62) “金弘壹 장군 永訣式 엄수”, 『동아일보』(1980년 8월 12일)

63) “光復精神 가슴에 새기며 冥福을 바랍니다. 告 逸曙 金弘壹 장군의 靈前에” 『경향신문』(1980년 8월 12일)

64) “KBS 국군의 날 特輯 「5星 장군 金弘壹」 방영”, 『경향신문』(1985년 9월 27일)

65)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6·25전쟁 4대 영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박경석 예비역 준장의 에세이인 「정의와 불의」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므로, 서술하지 않았다.

66) 박경석, 「정의와 불의」, 역바연, 2022, pp.89-94

방어선 방어, 1군단장으로서의 지연작전,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기계전투 승리, 그리고 육군 종합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전쟁영웅임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역사적인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1985년에는 박경석 예비역 준장이 쓴 ‘오성장군 김홍일’을 기반으로 드라마가 방영되었고,⁶⁷⁾ 2015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1월의 6·25전쟁 영웅⁶⁸⁾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는 그의 업적이 단순히 군사적 전공에 그치지 않고 국군 제도 발전과 군사정신 형성에 기여한 인물로서 재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83년의 전쟁영웅 선정은 김홍일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군사사에서 제도적 리더십과 독립운동 계보를 계승한 군 지도자상을 복원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 동시기 전쟁영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상징성과 제도적 리더십

앞서 기술한 대로 1983년 선정된 6·25전쟁의 공식 4대 영웅은 김홍일, 김종오, 더글라스 맥아더, 월튼 워커 장군이다.⁶⁹⁾ 그들의 공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7〉 6·25전쟁 4대 영웅의 주요 공적⁷⁰⁾

대 상	주요공적
김홍일 * 시흥지구전투사령관 * 제 1군단장 * 육군종합학교장	· 한강선 방어작전 ⇨ 6일 간 저지, 유엔군 상륙 시간 확보 · 한강이남 지연작전 ⇨ 낙동강 방어선 구축 기여 · 낙동강 방어작전 ⇨ 기계전투 승리로 낙동강 방어선 붕괴 저지 · 초급장교 양성 및 배출 ⇨ 전선유지 및 반격작전에 기여
김종오 * 제 6사단장 * 제 9사단장	· 춘천-홍천지구 전투 ⇨ 北 2군단 남진 저지, 작전계획 무력화 · 백마고지 전투 ⇨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 사수
더글라스 맥아더 * 유엔군 사령관	· 인천상륙작전 ⇨ 전세 역전, 낙동강 방어선 반격작전 기여 · 북진작전 ⇨ 평양 탈환, 초산일대 진출
월튼 워커 * 미 8군사령관	· 낙동강 방어작전 ⇨ 인천상륙작전, 반격작전에 기여

출처 : 저자 재구성

67) 김홍일 장군과 같이 4대 영웅에 선정된 김종오 장군 역시 1986년 KBS 1TV에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으로 일대기가 방영계 된다.

68) 국가보훈처, 『6·25전쟁의 영웅이 된 독립운동가, 김홍일 장군』(2016년 8월 31일)

69) 본 논문에서는 전쟁영웅 비교를 한국군 장성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여, 더글라스 맥아더, 월튼 워커 장군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70) 주요 공적은 6·25전쟁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로 한정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김홍일과 함께 한국군 장성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인물은 김종오 장군이다. 김종오 장군은 일본군 출신으로 대령 시절 6사단장에 임명되어 6·25전쟁 개전 초기 춘천-홍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2군단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그의 방어작전으로 북한군 초기 전쟁계획은 심대한 영향을 받았으며,⁷¹⁾ 중공군 공세 이후 고착된 전선에서는 백마고지 전투로 불리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물리쳐 철원-평강-김화를 잇는 철의 삼각지를 사수해 낸 인물이다.

김종오 장군 외에도 1983년 당시 전쟁영웅으로 추대하려 했던 10인의 후보가 있었으나, 전투공적과 국군에 이바지한 공적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4명이 선정되었다.⁷²⁾ 그리고 1983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영웅이 선정되었다. 2003년에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전쟁을 6개의 기간⁷³⁾으로 나누어 60명의 전쟁영웅을 선정하였고⁷⁴⁾, 2009년에는 6·25전쟁기 주요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6명의 전쟁영웅을 선정하였다.⁷⁵⁾ 또, 2011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달의 전쟁영웅’이 있다.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보훈 사업은 현재까지 185명이 선정되었다. 위 선정된 모든 전쟁영웅들이 전투공적에 의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투공적, 교전 중 전사, 피난민 구출 등의 사유로 선정되었다.⁷⁶⁾

김홍일은 단순한 전투 영웅의 기준을 넘어서, 제도적 리더십 발휘와 상징적 인물로서의 전쟁 영웅상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6·25전쟁 이전부터 우리나라 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독립군, 광복군 등에서 활약하며, 정신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 두 번째 이유는 국군 창설기 『국방개론』 저술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군의 모습과 군사제도의 정비에 기여한 점, 세 번째 이유는 어려운 상황 속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한강선 방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71) 손문식, 「開戰初期 춘천·홍천전투 연구」, 국방군사연구소, 1999, pp.202

72) 1983년 6·25전쟁 4대 영웅을 직접 선정한 박경석 예비역 준장과의 유선 면담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다.

73) 1기 : 북한군의 기습남침(1950. 6. 25.~7. 4.)

2기 : 지연전 및 낙동강 방어작전(1950. 7. 5.~9. 14.)

3기 : 반격 및 북진작전(1950. 9. 15.~11. 24.)

4기 : 중공군 개입 및 재반격(1950. 11. 25.~1951. 7. 9.)

5기 : 휴전회담과 제한전(1951. 7. 10.~1952. 12. 31.)

6기 : 전선이 교착과 고지쟁탈전(1952. 1. 1.~1953. 7. 27.)

74) 손규석,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군사편찬연구소, 2003

7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8명의 영웅들」, 월간아미 통권 제6권, 2009, pp.52-59

76) 김홍일 장군은 1983년, 2003년, 2015년에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초대 1군단장으로서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기 전까지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펼친 점, 마지막으로 전쟁 기간 수많은 후진 양성으로 실질적이고 리더십을 갖춘 장교를 배출하는 등 국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최영진(2016)의 연구에서처럼, 195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영웅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달라져왔지만,⁷⁷⁾ 김홍일의 업적을 놓고 보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전쟁영웅이라 할 수 있겠다.

6·25전쟁의 기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될 때까지 1,129일 간의 시간 중 김홍일이 활약했던 시간은 고작 69일뿐이다. 그러나 그가 전쟁영웅으로서 우리 군사사에 자리 잡고 있는 기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1. 연구 요약 및 김홍일의 역사적 평가

본 연구는 6·25전쟁 전·후 김홍일의 군사적·제도적 기여를 고찰함으로써, 전쟁영웅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6·25전쟁 4대 영웅에 대해서 아시나요?” 질문에 단연 첫 번째 대답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며, 김홍일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은 편이다.⁷⁸⁾ 김홍일은 독립군 및 광복군 활동을 통해 항일무장투쟁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고, 국군 창설기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군사교육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6·25전쟁 발발 직후에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서 한강 방어선의 형성과 6일간의 지연작전을 통해 UN군 파병과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된다.⁷⁹⁾

비록 여러 가지 이유에서 1950년 9월 1일, 육군참모학교장 발령 후 ‘작전 지휘’ 측면에서 배제되었지만, 김홍일은 국군 내부의 조직 정비와 병력 재편, 군사 제도운영을 통해 군의 생존과 전력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즉, 김홍일은 단지 전투에 참여한 장군이 아닌, 전장을 설계하고 지휘 체계를 안정시킨 군제도 창설자였으며,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정비를 통해 전쟁 이후를 대비했고, 국군의 조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강하며

77) 최영진, “한국적 전쟁영웅의 탄생과 시대적 변화”, 『국제정치연구』, 제19집 2호, 2016, pp.362~363

78) 6·25전쟁사 교관으로 1,039명의 사관후보생들을 교육하며 던진 질문으로, 김홍일 장군을 언급하는 후보생은 5% 미만이었다.

79) 국방부,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군사편찬연구소』, 2015, pp.56

오늘날 대한민국 군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김홍일은 “싸운 영웅”이자 “세운 영웅”이며, 단기 전공보다 장기 구조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리더라 할 수 있다.

2. 향후 연구 방향 제언

본 연구는 김홍일의 6·25전쟁 전·후의 역할을 통해 상징성, 전투성과, 제도적 기여 등을 두루 갖춘 통합형 전쟁영웅의 존재 가능성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김홍일은 전쟁 기간 전략 및 전술 운용뿐 아니라 국군의 근간을 세운 제도적 리더로서, 전쟁영웅의 범주 내에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제도 설계자·지원자·조율자 계층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전투성과 외적 공헌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수·병참·지휘체계 구축에 기여한 고위직 인물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

둘째, 전쟁영웅 선정 기준은 고정된 군사적 전공이 아니라, 전후 복원력과 제도적 기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기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영웅의 창출은 단순히 공적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기억정책, 대중서사, 정치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담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셋째, 향후 한국전쟁 연구는 비전투형 기여자 또는 제도형 리더십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영웅서사의 구조적 다층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 전투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 군 체계 유지와 발전을 견인한 리더십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김홍일 개인의 재조명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군사사와 기억 정치의 균형을 되찾는 작업이자, 한국형 군 리더십의 뿌리를 확인하는 역사적 성찰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25. 08. 04, 심사완료일 : 2025. 10. 14, 게재확정일 : 2025. 11. 05.〉

참/고/문/헌

〈1차 사료〉

- 국방부, 『건군사(建軍史)』,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6·25전쟁사 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5
 국방부, 『6·25전쟁사 3권』, 군사편찬연구소, 2006
 국방부, 『6·25전쟁사 5권』, 군사편찬연구소, 2008
 국방부, 『國防史年表, 1945-1990』, 국방군사연구소, 1994
 육군본부, 『육군사』, 육군본부, 1962

〈단행본 및 자료집〉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나남출판, 1996
 박동찬,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군사편찬연구소, 2024
 조승욱, 『육군사관학교 : 그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글씨앗, 2024
 김홍일, 『나의 六·二五緒戰回顧: 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사, 1964
 김홍일, 『國防概論』, 고려서적, 1949
 엄섭일, 『한국전쟁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한국전쟁전투사 진천-화령장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
 합동군사대학교 전쟁사연구실, 『6·25전쟁사 上』, 합동군사대학교, 2013
 국방부,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합동군사대학교 전쟁사연구실, 『6·25전쟁사 中』, 합동군사대학교, 2013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기파랑, 2010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육군본부, 『1129일간의 전쟁 6·25』, 육군군사연구소, 2014
 박경석, 『陸軍綜合學校』, 서문당, 1990
 국방부,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군사편찬연구소, 2015
 박경석, 『5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2020
 박경석, 『정의와 불의』, 역바연, 2022

손규석,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군사편찬연구소, 2003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8명의 영웅들』, 월간아미 통권 제6권, 2009

〈논 문〉

- 김광규, “6·25전쟁에서 ‘전쟁영웅’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사회과교육연구』, 제26권 2호, 2019
- 남정옥, “김홍일의 독립운동과 국군에서의 활약”, 『월간순국』, 6·25전쟁 정전70주년 특집, 2023
-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軍史)』, 제99호, 2016
- 최영진, “한국적 전쟁영웅의 탄생과 시대적 변화”, 『국제정치연구』, 제19집 2호, 2016
- 썬커즈, 유호인, “김홍일의 독립운동과 항전 활동”,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장군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 김영환, “6·25전쟁 초기 지연전의 지휘와 성과”,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장군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 김종문, “김홍일의 일생과 독립운동”, 『한국근대사연구』, 제68호, 2014
- 한시준, “중국 군인 신분으로 항일운동을 한 김홍일”, 『사학지』, 제57호, 2018
- 김영환, “창군기 기동군 창설 담론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56집, 2023
- 김영환, 이성춘, “북한의 6·25전쟁 계획과 대전지구 전투에 관한 재평가”, 『평화학연구』, 제24권 4호, 2023
- 정형아, “군사전문가로서의 김홍일과 중국”, 『오성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사단법인 김홍일장군기념사업회 1회 국제학술회의, 2024
- 김지훈, “김홍일의 중국 국민혁명군 경험과 국방개론 저술”, 『군사(軍史)』, 제112호, 2019
- 정호영, “6·25 개전 초 한강방어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다. 독립군·광복군 출신으로 국군 최초 별 단 김홍일 장군”,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제569호, 2021

- 김태산, “육군사관학교 변천사 연구 : 1946~1969년 교수부교과과정 및 편제 변천을 중심으로”, 『학예지』, 제23집, 2016
- 남보람, “미 국립문서 속의 6·25: 김홍일 장군의 ‘국방개론’을 통해 본 창군이념 (1)”, 『(월간)자유통권』 518호, 2016
- _____, “미 국립문서 속의 6·25: 김홍일 장군의 ‘국방개론’을 통해 본 창군이념 (2)”, 『(월간)자유통권』 519호, 2016
- 조선일보사, “戰時사관학교 육군종합학교 출신 장교 7288명 : 6~9주 훈련받고 死線으로 3550여 명 전사·부상”, 『주간조선 통권』 2111호, 2010
-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實錄)六,二五 韓國戰爭과 陸軍綜合學校”,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1995
-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陸軍綜合學校 : 그 榮光된 자취를 찾아”, 『자유사』, 1999
- 김운기, “총알받이 장교의 限 : 한국전쟁과 陸軍綜合學校”, 『한국논단』, 1994
- 손문식, “開戰初期 춘천·홍천전투 연구”, 『국방군사연구소』 1999,

〈신문기사 및 기타〉

- “김홍일(金弘晷)”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sk.ac.kr/Article/E0011096>), 검색일 : 2025. 10. 17)
- “오성 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 『김홍일 장군 기념 사업회』
(http://www.kimhongil.org/kim_history01.asp, 검색일 : 2025. 10. 14)
- “대한민국 육군대학”,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Q%A%B5%AD_%EC%9C%A1%EA%B5%B0EB%8C%80%ED%95%99, 검색일 : 2025. 7. 12.)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한국광복군 I,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 검색일 : 2025. 10. 15.)
- “대한민국 ‘5성 장군’ 김홍일 … 별 둘은 광복에, 별 셋은 구국에 바치다.” 『한국일보』
(2025년 7월 3일).

“金弘壹 장군 永訣式 엄수”, 『동아일보』(1980년 8월 12일).

“光復精神 가슴에 새기며 冥福을 빕니다. 告 逸曙 金弘壹 장군의 靈前에” 『경향신문』(1980년 8월 12일)

“KBS 국군의 날 特輯 「5星 장군 金弘壹」 방영”, 『경향신문』(1985년 9월 27일)

“6·25전쟁의 영웅이 된 독립운동가, 김홍일 장군” 『국가보훈처』

(<https://m.korea.kr/news/interviewview.do?newsId=148820845&utm>,

검색일 : 2025. 07. 19.)

(Abstract)

Re-examination of war hero General Kim Hong-il: Based on the life of the general and the role of the Korean War

Choi Guk ge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ilitary and institutional role of General Kim Hong-il, who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ur major heroes of the Korean War along with General MacArthur, Walker, and Kim Jong-oh, from various angles, and to re-examine his historical status as a war hero.

General Kim Hong-il, a former independence activist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was relatively marginalized in evaluating his military achievements during the Korean War and no follow-up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General Kim Hong-il's practical role in establishing the Nakdonggang River defense line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through strategic contributions to the formation of the Si-heung District Combat Comm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an River Defense War. In addi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war hero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relative status and symbolic meaning of General Kim Hong-il are summarized, and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war heroes is examined.

This study will re-establish the narrative structure of heroes in Korean military history an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istorical legitimacy and the nature of military leadership.

Key words : Kim Hong-il, Korean War, War Hero, Liberation Army, Military Identity